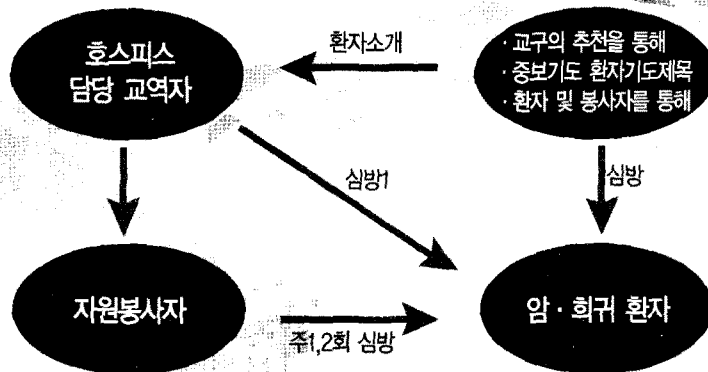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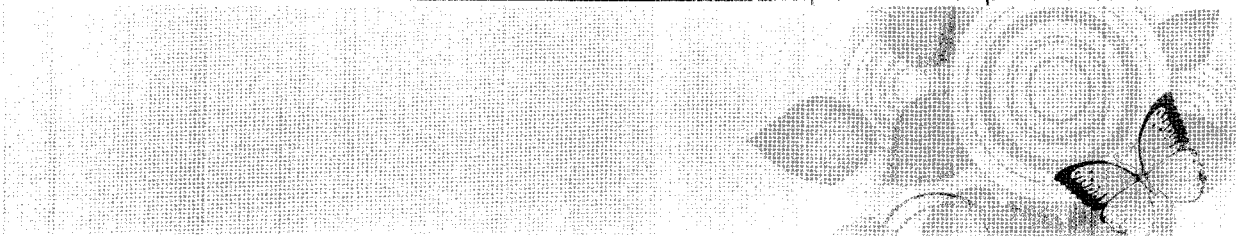
사랑의교회 호스피스·전인치유

◆ 호스피스, 전인치유 부서 소개

호스피스는 1992년 1월, 사랑의교회 중직들의 모임인 120인 기도회를 통해 박남규 목사와 평신도 지도자 중 6명이 환자를 섬기기 위해 준비하면서 1992년 2월 “호스피스 사역” 활동이 시작되었다. 호스피스 섬김의 대상은 죽은 자(dead)가 아닌 죽어가고 있는 자(dying)이기에 이들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섬기는 것이다. 이런 섬김을 통해 환자들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확신을 평안과 확신으로 지지해 줌으로써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끝까지 투병을 잘 감내하도록 섬기고 있다.

사별관리는 환자가 임종하고 나면 환자 개인에게는 이 땅에서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모든 사회적인 책임을 벗어버리게 된다. 그러나 남은 가족에게는 감당해야 하고 책임져야 할 모든 일들이 현실로 남게 된다. 남편(아내), 부모(자식), 형제(자매)를 잃고 난 후 결손된 피부리에 대한 정서적 빈자리는 마음의 아픔으로 남아 상당 기간 가족들을 우울하게 만든다. 그래서 남은 가족을 돌봄에 있어서 정서적인 면을 우선 중시해야 하기에 사랑의교회 호스피스는 94년부터 사별가족들을 돌보는 시간과 방법들을 달리하며 상황에 따라 조절하여 섬기고 있다.





1) 호스피스, 전인치유

① 가정호스피스

가정 호스피스는 대부분 교회와 연결된 성도들 중 교구담당 교역자들이나 사랑의교회 성도들의 가정 중 암과 같은 불치병으로 투병하는 환자와 그 가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큰 소망을 갖고 투병을 지지해 주며 섬긴다.

(여자호스피스 : 13팀, 남자호스피스 : 7팀)



② 병원호스피스

병원 호스피스는 현재 7군데 병원을 지정해 놓고 병원에서 입원하여 투병하는 환자들을 찾아가 복음을 통해 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섬길 뿐 아니라 낙심 가운데서 투병하는 환자와 가족들을 끝까지 예수님과 잘 투병하도록 섬기고 있다. (6개 병원에서 10팀이 섬기고 있음)



③ 생명회복 연구소

: 생명회복 연구소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영적, 정서적, 육체적, 심리적 회복이 일어나게 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 보낸 사별가정들의 상실감과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http://renewlife.sarang.org>)

사랑의교회 호스피스·전인치유

2) 사별관리

① 사랑의 올타리 모임

사별로 한 부모를 하나님 앞으로 먼저 보낸 고등학생까지 자녀들을 위해 섬기는 모임으로 이들의 상실감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져, 가장으로서의 책임감만으로 세상을 힘들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공동체의 사랑을 통해 영적, 정신적으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돕는 모임이다. 분기별로 아이들을 위한 특강 및 세미나를 보강하여 개최할 계획이다. (ex:예절교육, 미술 및 음악 특기반 구성등)

② G. F(좋은 아내, 좋은 친구들)모임

혼자된 남편들과 모임으로 아내가 떠나 버린 빈자리를 어떻게 해야 슬기롭게 믿음 안에서 잘 감당 할 수 있을까 모임을 통해 서로의 위로와 형제애를 회복함으로 상실감을 치유하는 월 1회 모이는 모임이다.

③ 주바라기 모임

남편을 먼저 하나님께 보내고 혼자된 부인들의 모임 중 특별히 2년 미만의 자매들의 모임으로 월 2회 모임을 통해 이들이 삶의 근원을 예수 안에서 찾으며, 회복되는 삶의 기본을 익혀가는 과정이다.

④ 살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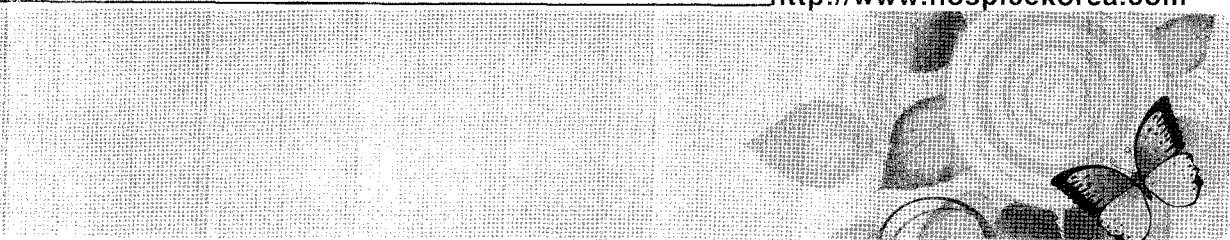
홀로된 지 2년 이상 여성들의 모임으로 구성되어있다. 월2회 모임을 통해 예수 안에서 현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말씀과 기도와 친교를 통해 삶을 나누는 공동체의 모임이다.

3) 호스피스 전인치유 자원봉사자 교육

: 호스피스 전인치유 자원봉사자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상반기(16주간), 하반기(직장인 위한 저녁반 /13주간, 박남규 목사 외 다수의 강사진들로 년 2회 강의를 개설합니다.

①상반기 : 2월 초부터 16주간 (매주 수요일 13시 30분~ 17시)

②하반기 : 9월 초부터 13주간 (매주 목요일 19시~ 21시 30분)



4) 호스피스.전인치유 가족의 밤

: 매년 12월 크리스마스 전(前)주 월요일은 환자와 자원봉사자 가족과 환자의 가족들, 호스피스를 후원하는 기도의 동역자들과 후원단체들, 사별관리 모든 팀과 가족들을 초청하여 격려와 새로운 각오를 위해 “호스피스.전인치유 가족의 밤” 행사를 실시합니다.



5) 호스피스 소식지 “에셀나무”

: 사랑의교회 호스피스.전인치유가 소식지 “에셀나무”를 년2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의 섬김을 통해 연약한 환우결에서 느낀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그리고 섬김의 기쁨을 나누며, 에셀나무처럼 생명력있는 소식지로 환우결에 다가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부활의 능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http://hospice.sarang.org/es_tree.asp)

6) 사랑의 치유캠프

: 사랑의 울타리 모임, 주바라기, 살롬회, G.F(좋은 아빠, 좋은 친구들), 호스피스.전인치유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장기 3박 4일과 1박2일(단기)동안 사별의 상실감을 회복하는 년2회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이 갖고 있는 연약함을 지지하고 회복시키는 치유캠프입니다.

